

## 생략의 담화 기능에 관한 연구

- 현대중국어론 중심으로 -

李 範 烈\*

<目次>

I. 머리말	IV. 정보와 생략
II. 생략의 조건	V. 생략의 담화 기능
III. 생략의 유형	VI.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글자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수시로 다양한 표현들을 생략하여 간결하면서도 의도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인들의 일상적인 담화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략에 관한 담화적 연구는 매우 부진하다.

중국에서 생략에 대한 연구는 馬建忠(1898)이 《馬氏文通》에서 주어와 술어의 생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 呂叔湘(1942), 王力(1946) 등이 저서의 일부에서 생략에 관하여 다소 언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로 주로 통사(句法)적인 측면에서 문장 성분의 생략에 대한 연구가 朱德熙(1982), 方梅(1985), 胡裕樹·範曉(1996)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촘스키(1982)의 영향을 받아 공범주(空語類)를 중심으로 생략에 대한 연구가 榮晶(1989),

\* 釜山外國語大學校 中國語學部 講師

範開泰(1990), 沈陽(1994)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榮晶(1989)은 공범주 개념을 도입하여 생략, 함축, 공범주를 구분하였으며, 範開泰(1990)는 생략과 함축 그리고 암시(暗示)를 구분하였다. 담화분석의 측면에서 陳平(1987)은 영대용어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중영비교 연구는 唐靜(2003), 鄭萍(2006), 張麗新(2007), 楊素琴(2014), 李豐芮(2014)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현대중국어의 생략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문장의 연결 수단을 논하는 과정에서 생략에 대해 일부 언급하였다.

현대중국어의 생략 현상에 대한 국내의 연구도 부진한 편이며, 주로 생략의 개념에 대한 연구로 朴英綠(1997)을, 문장 성분의 생략에 대한 연구로 白水振(1994), 이민우(2006), 杜豔冰(2010) 등을 들 수 있다. 생략의 조건과 유형에 대한 연구로는 金希珍(1995), 李南京(1999) 등을 들 수 있으며, 문장 성분 생략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가 尹敬愛(2003), 루쥘(2012)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생략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다시 정리하는 정도였으며, 담화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생략은 일상적인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현상이므로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일상적인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략의 담화 기능을 현대중국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생략이 담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임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전달하려는 정보의 표현 및 전달 방법, 정보의 연결 관계, 그리고 대화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분석의 대상은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로, 인터넷, 신문, 문학작품, 중국어회화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특별한 인용 출처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얻은 자료이다.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논문의 목표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생략의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제3장에서는 생략의 유형으로 상황적 생략, 문맥적 생략, 전보적 생략에 대하여 논

의한다. 제4장은 정보와 생략에 관한 논의로, 주어진 정보<sup>1)</sup>로서 정보 가치가 매우 낮은 것이 생략의 대상이 됨을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생략의 담화 기능으로 정보의 경제적 표현과 이해, 명료한 정보 전달, 정보의 응집력 강화, 그리고 대화자의 협력적 상호 작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 II. 생략의 조건

담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략’이란 화자의 발화 목적에 따라 “문장의 표면 구조에서 문장의 요소가 누락되는 현상으로, 누락된 요소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맥락으로부터 의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복원될 수 있는 것”<sup>2)</sup>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략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첫째, 생략은 담화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발화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 (1) A: 你去醫院看病了嗎?  
 (너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았니?)  
 B: ① 是, 我( )看病了。  
 (예, 저는 진찰 받았어요.)  
 ② 是, 我去北京醫院( )了。  
 (예, 저는 북경병원에 다녀왔어요.)  
 ③ 是, 我去北京醫院看病了。  
 (예, 저는 북경병원에 가서 진찰 받았어요.)

1) ‘주어진 정보’(given information)는 ‘구 정보’(old information)로 사용되기도 한다.

2) 丁喜子, 《담화와 문법(수정판)》, 한국문화사, 2008, 165쪽 인용.

(1)에서 A의 질문 ‘你去醫院看病了嗎?’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으로 B는 ①이나 ② 또는 ③으로 대답할 수 있다. ①로 응답하는 경우에, B는 A의 질문에 대한 동의(是)와 함께 ‘看病了’를 강조하기 위해 A의 발화에서 언급된 ‘去醫院’을 생략한다. 이 경우에 ‘看病了’는 ‘去醫院了’를 함축한다. ②로 대답하는 경우에 B는 동의(是)와 함께, ‘北京醫院’에 간 것을 강조하기 위해 ‘看病’을 생략한다. 이 경우에 ‘去北京醫院了’는 ‘看病了’를 함축한다. ③으로 응답하는 경우에 B는 ‘是, 我去北京醫院看病了’처럼 아무 것도 생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北京醫院’과 같은 신정보를 추가하여 정중하게 대답한다. 이처럼 생략의 여부나 생략할 요소는 화자의 발화 목적에 따라 선택된다.

둘째, 생략은 맥락 없이는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생략된 동일 부분이 맥락에 따라 다른 대상을 지시하기도 한다.<sup>3)</sup>

(2) 我一點都不喜歡( )。

(나는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3) a. 你喜歡他嗎? (너는 그를 좋아하니?)

b. 你喜歡足球嗎? (너는 축구를 좋아하니?)

c. 那部電影你覺得怎麼樣? (그 영화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2)의 문장은 적절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는 생략된 ‘不喜歡’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2)의 문장이 (3a)의 ‘你喜歡他嗎?’에 대한 대답으로 발화된 경우에 생략된 ‘不喜歡’의 대상은 ‘他’가 되지만, (3b)에 대한 대답일 경우

3) 맥락은 상황적 맥락, 문맥적 맥락,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들 수 있다. 상황적 맥락은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화자와 청자, 발화 시간과 장소, 발화와 관련된 것들을 나타내고, 문맥적 맥락은 선·후행 언어적 표현을 나타내며, 사회·문화적 맥락은 대화자들이 사회 상황이나 문화적 관습에 대하여 갖고 있는 세상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맥락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에는 ‘足球’가, (3c)의 대답일 경우는 ‘那部電影’이 될 것이다. 이처럼 생략된 부분은 맥락 없이는 복원될 수 없으며, 선행하는 맥락에 따라 생략된 부분이 결정된다.

셋째,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청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요소가 맥락에 의해 복원 가능하거나 추론 가능해야 한다.

(4) A: ① ( )歡迎您兩位, ② ( )裏邊請( ).

(당신 두 분을 환영합니다, 안으로.)

B: ① ( )把菜單給我。這裏的招牌菜是什麼菜?

(메뉴를 저에게 주세요. 여기의 대표 음식이 무엇이지?)

(4)는 음식점에서 종업원(A)과 손님(B)의 대화이다. A는 ①에서 대화 상황에 있는 화자를 포함한 음식점 식구들을 나타내는 ‘我們’을 생략한다. 이러한 생략은 상황적 맥락을 토대로 한 것이다. ②의 문두에서는 선행 문맥에서 언급된 ‘您兩位’를 생략한 것으로 문맥적 맥락을 토대로 하며, 권유를 나타내는 ‘請’ 다음에는 ‘坐’를 생략한다. 이는 음식점에서 ‘안으로 앉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듣게 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한 생략이다. 권유에 따라 자리에 앉은 B는 ①에서 대화 상황에 존재하는 A를 지시하는 ‘你’를 생략한 상황적 생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적 맥락, 문맥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생략된 요소는 의미 변화 없이 청자에 의해 용이하게 복원 또는 추론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생략은 선·후행 문맥에서 언급된 것과 형태 및 지시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다.

(5) a. ① 我的商店賣大陸的繡織品, ② ( )很受顧客歡迎, ③ 連總統夫人

也來買( ). (黃依嬌 <個歷經滄桑的華裔女性>)

(나의 상점은 대륙에서 나온 자수직물을 파는데,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심지어 총통의 부인까지도 와서 샀다.)

b. ① 在等余校長期間, ② 張英才將熟雞蛋分給他倆一人一個( ), ③

他自己也吃一個( )。(劉醒龍 《鳳凰琴》)

(余교장을 기다리는 동안, 張英才는 삶은 달걀을 그 두 사람 개개인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그 자신도 한 개를 먹었다.)

(5a)의 저자는 선행절①에서 ‘繡織品’을 신정보로 소개하고, 후행절② ‘( ) 很受顧客歡迎’의 문두 위치에서 선행절①에서 언급된 ‘繡織品’을 생략하고, 다시 후행절③ ‘連總統夫人也來買( )’에서 ‘買’의 목적어 위치에서 ‘繡織品’을 생략한다. 후행절②와 ③에서 생략된 ‘繡織品’은 선행절①에서 소개된 ‘繡織品’과 같은 형태로 동일한 지시 대상을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5b)의 ② ‘張英才將熟雞蛋分給他倆一人一個( )’의 경우에 앞부분에서 언급된 ‘熟雞蛋’이 뒷부분 ‘一人一個’ 뒤에서 생략되어 있다. 이 경우에 두 사람 각각에게 나눠준 것으로 생각되는 ‘熟雞蛋’은 선행하는 ‘熟雞蛋’과 지시의 동일 범주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sup>4)</sup> 또한 후행절③ ‘他自己也吃一個( )’에서 생략된 ‘熟雞蛋’도 바로 앞 절②에서 생략된 ‘熟雞蛋’과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주에 속한 다른 대상을 지시한다. 이처럼 동일한 표현으로 지시하는 대상이 같거나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를 보자.

(6) a. 他的腳扭了筋, ( )跑不快。

(그의 다리가 접질려서, 빨리 뛸 수 없었다.)

b. 以他的資格, ( )本來有很多機會去做大官。

(그의 자격으로, 원래 높은 관직을 맡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6a)와 (6b)에서처럼, 선행하는 요소들의 일부와 형태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후행절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6a)에서 선행절의 주어로 ‘他的腳’이 주어진 상황에서 후행절의 주어로 ‘他’가 생략되어 있다. 생략된 ‘他’가 선

4) 하나의 ‘熟雞蛋’을 두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熟雞蛋’라는 범주에 속하는 두 개의 (삶은) 달걀을 두 사람 각각에게 하나씩 나눠준 것이다.

행절 ‘他的腳’의 일부로 나타났고, ‘원인’을 나타내는 선행절의 의미(그의 다리가 접질리다)와 ‘결과’를 나타내는 후행절의 의미(빨리 떨어질 수 없었다)를 연결하고, 이에 청자의 추론이 작용하여 청자는 생략된 요소가 ‘他’임을 복원할 수 있다. (6b)의 경우에 선행하는 전치사구 ‘以他的資格’의 한 부분으로 ‘他’가 출현하므로, 후행절의 주어로 ‘他’가 생략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선행하는 부분 ‘以他的資格’(그의 자격으로)과 후행절 ‘本來有很多機會去做大官’의 의미(원래 높은 관직을 맡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를 연결함으로써 생략된 후행절의 주어(他)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태적 동일성과 지시의 동일성은 넓은 범위의 동일성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략은 상황적, 문맥적,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며, ‘무엇을 부각시켜 청자의 주의를 모으까’하는 화자의 발화 목적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반드시 청자가 생략된 요소를 복원 또는 추론할 수 있어서 의도한 정보가 성공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화자가 판단할 경우에 ‘생략’을 사용한다. 또한 생략은 넓은 범위의 형태 및 지시의 동일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 III. 생략의 유형

중국인들이 일상적인 담화에서 사용하는 생략은 복원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상황적 생략, 문맥적 생략, 전보적 생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황적 생략은 특정한 담화 상황에서 복원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와 일정한 부분을 관습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 (7) a. 兩張上海!  
(상해 두 장!)

b. 我現在要兩張去上海的火車票!

(나는 지금 상해로 가는 기차표 두 장을 원합니다!)

(7a)는 기차역에서 손님이 매표원에게 한 발화로 (7b)의 생략형이다. 이러한 발화 상황에서 추론이 가능한 잉여적인 정보인 ‘我現在要....去....的火車票’는 생략되고, 중요한 정보인 ‘兩張上海!’만이 전달된다. 생략된 부분 ‘我現在要....去....的火車票’는 위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복원 가능한 것이므로 특정한 상황적 생략이라 한다.

(8) A: 你去看他了嗎?

(너는 그를 보러 갔니?)

B: ( ① )沒去。

(안 갔어.)

A: 爲什麼( ② )呢?

(왜지?)

B: ( ③ )沒空, 有空( ④ )再去。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있을 때 다시 갈게.)

(8)의 대화 상황에서 대화에 직접 관여하는 ‘화자’를 지시하는 ‘我’가 ①, ③, ④에서 생략되고, A의 발화 ②에서는 ‘청자’를 지시하는 ‘你’와 B의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沒去’가 생략되어 있다. 이처럼 화자와 청자를 각각 지시하는 ‘我’와 ‘你’는 대화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생략되는 일반적인 상황적 생략이라 한다.

문맥적 생략은 단문에서 동일 문맥 내의 선·후행 요소를 근거로 생략하는 경우와 복문에서 선·후행 문맥에서 언급된 요소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 생략의 근거가 되는 맥락의 위치에 따라 순행 생략과 역행 생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순행 생략은 후행절에서 생략된 요소가 선행 맥락으로부터 복원 가능한 것을 나타내며, 역행 생략은 선행절에서 생략된 요소가 후행 맥락으로부터 복원 가능한 것을 나타낸다.



- (9) a. 這瓶酒( )太貴。  
 (이 술은 너무 비싸다.)  
 b. 二十六( )是我的生日。  
 (이십육은 나의 생일이다.)

단문인 (9a)의 ‘這瓶酒( )太貴’에서 ‘價錢’이 생략되었고, (9b)의 ‘二十六( )是我的生日’에서는 ‘號’가 생략되었다. (9a)의 경우에 동일 문장 내의 선행하는 ‘酒’와 후행하는 ‘太貴’로 인하여 ‘價錢’이 생략되었음이 추론되고, (9b)에서는 후행하는 ‘我的生日’로부터 ‘二十六號’에서 ‘號’가 생략됨을 추론하게 된다. 이처럼 동일 문맥 안에 있는 선·후행 요소를 근거로 복원 가능한 잉여적인 정보를 생략한다.

- (10) a. 錢先生服了止痛藥安神的藥, ( )睡得很好。  
 (錢선생은 진통신경안정제를 먹고서야, 꼭 잤다.)  
 b. ( )服了止痛藥安神的藥, 錢先生睡得很好。(老舍 《四世同堂》)  
 (진통신경안정제를 먹고서야, 錢선생은 꼭 잤다.)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복문으로, 주어의 생략 위치가 다른 (10a)와 (10b)의 경우를 보자. (10a)는 선행절의 주어 ‘錢先生’과 동일한 주어가 후행절에서 생략된 순행 생략의 경우이고, (10b)는 후행절의 주어 ‘錢先生’과 동일한 주어가 선행절에서 생략된 역행 생략의 경우이다. 순행 생략이든 역행 생략이든 화자가 전달하려는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하다. 단지 화자가 어떤 의미를 강조하려는가에 따라 생략의 위치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10a)에서는 ‘止痛藥安神的藥’을 먹은 행위자 ‘錢先生’을 선행절에 제시한 경우이다. 인과관계의 문장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부분을 ‘결과’의 부분보다 부각시킨 경우이다. 반면에 (10b)에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 ‘睡得很好’를 강조하기 위해 행위자인 ‘錢先生’을 ‘睡得很好’의 앞에 제시한 경우이다. 일상적인 대화로는 청자가 역행 생략의 경우보다 순행 생략의 경우를 더 용이하게 이해한다. 순행 생략의 경우는 대화의 주제 역할을 하는

주어<sup>5)</sup>를 먼저 제시하여 청자의 인지에 활성화시킨 후, 동일 주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므로 청자에게 부담을 적게 준다. 역행 생략의 경우에는 주체가 등장하기 까지 청자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파악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따른다. 따라서 순행 생략이 무표적 용법이라면, 역행 생략은 화자의 특별한 발화 목적과 관련된 유표적 용법이라 하겠다.

전보적 생략은 상황적 생략, 문맥적 생략 등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제안’, ‘권유’, ‘금지’, ‘광고’ 등에서 자주 사용된다. 전보를 칠 경우에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표현만 간단명료하게 사용하듯이, 상황적, 문맥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복원 가능한 요소들을 모두 생략하고, 핵심적인 요소들만 사용한 것으로 인습적으로 사용된다.

- (11) a. 請坐! (앉으세요!)  
 b. 一起去吧! (같이 가요!)  
 c. 下次再見! (다음에 또 만나요!)
- (12) a. 禁止抽煙。(흡연금지.)  
 b. 請節約用水。(물을 아껴서 쓰세요.)  
 c. 請勿坐靠。(앉거나 기대지 마세요.)

(11a)의 ‘請坐!’는 ‘我請你坐!’에서 화자를 지시하는 ‘我’와 청자를 나타내는 ‘你’가 생략된 것이며, (11b)의 ‘一起去吧!’는 ‘我們一起去吧!’에서 ‘화자와 청자’를 나타내는 ‘我們’이, (11c)의 ‘下次再見!’도 ‘화자와 청자’를 나타내는 ‘我們’이 생략된 것이다. (12a)는 주로 공공건물이나 장소에 부착되

5) 한 문장은 세 가지 층위(통사층위, 의미층위, 담화층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 통사층위에서는 ‘주어’, ‘술어’, ‘목적어’ 등으로, 의미층위는 ‘행위자’, ‘피행위자’, ‘도구’ 등으로, 담화층위는 ‘주제’, ‘초점’ 등으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통사적 주어가 담화의 주제 역할을 한다. 주어가 주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무표 주제라 하며, 주어 이외의 요소가 문두로 이동하여 주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유표 주제라 한다. 이범열, <현대중국어의 주제에 대하여-담화 기능적 관점에서>, 《中國語文學誌》 第33輯, 2010, 405-406쪽 참조.

어 있는 표현으로, ‘我們禁止你(們)抽烟’에서 공공건물이나 장소를 관리하는 ‘我們’과 그 건물이나 장소에 오는 사람을 나타내는 ‘你(們)’을 생략한 것이다. 금지시키는 행위자나 당하는 피행위자를 강조할 필요가 없고, 단지 부각시켜 강조하려는 ‘禁止’와 ‘抽烟’만을 표현한 것으로 고착화되었다. (12b)의 ‘請節約用水’는 ‘用水’를 관리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我們’과 요청을 받는 사람 ‘大家’를 생략하고, 강조하려는 내용 ‘節約用水’와 ‘요청’을 나타내는 ‘請’만을 사용한 것이다. (12c)의 ‘請勿坐靠’는 페인트를 칠한 물건 앞에 붙어있는 공고문이다. 이 경우에도 그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인 ‘我們’과 요청을 받는 사람 ‘大家’가 생략되고, 꼭 전달하려는 ‘勿坐靠’와 요청을 나타내는 ‘請’만을 사용한 것이다.<sup>6)</sup>

(11)과 (12)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보적 생략은 상황적, 문맥적, 사회·문화적으로 복원 또는 추론 가능한 요소들을 생략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어휘들로 굳어진 표현으로 일상생활에서 인습적으로 사용된다.

#### IV. 정보와 생략

생략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자의 정보 전달과 전달된 정보에 대한 청자의 이해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어떤 요소가 생략되는가는 정보의 유형 및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상적인 담화 과정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맥락에 따라 상황적 정보, 문맥적 정보, 보편적 정보로 구별할 수 있다. 상황적 정보는 화자와 청자, 담화 장소, 담화 시간, 담화와 관련된 대상 등에 대한 정보이며, 문맥적 정보는 담화 지점을 중심으로 선행 문맥이나 후행 문맥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이다. 그리고 보편적 정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화·청자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 또는 배경 지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보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와 신정보로 구분된다. 주어진 정보는 담화 상황에 나타나

6) (12b)와 (12c)에서 ‘請’을 생략하면,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 된다.

있거나 선·후행 문맥에서 언급되어 화·청자의 의식에 활성화되어 있는 정보, 또는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청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세상 지식이나 배경 지식을 나타낸다. 반면 신정보는 화자가 제시함으로써 청자가 알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나타낸다.<sup>7)</sup>

정보는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하여 정보 가치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 예로서, 화자가 청자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신정보는 주어진 정보보다 정보 가치가 높다. 또한 주어진 정보 중에서도 발화 목적과 관련하여 정보 가치가 더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의 유형 및 가치와 관련하여, 생략의 대상은 신정보를 나타내는 요소보다 주어진 정보를 나타내는 요소가 생략되며, 주어진 정보를 나타내는 요소들 중에서도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요소가 생략된다. 다음은 전화상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다.

- (13) a. A: 你在幹什麼呢?  
(너는 지금 뭐하니?)  
B: 在打行李呢。  
(짐을 꾸리는 중이야.)  
b. A: 爲什麼? 你去旅遊嗎?  
(왜? 너는 여행가니?)  
B: 是的。周末我去北京看朋友。  
(그래. 주말에 나는 친구 만나러 북경에 가.)  
c. A: 你住在他家嗎?  
(너는 그 사람 집에서 묵니?)  
B: 不, 我住在北京飯店。  
(아니, 나는 북경반점에서 묵어.)  
d. A: 北京飯店在哪兒?  
(북경반점은 어디에 있는데?)  
B: 在天安門的附近。  
(천안문 근처에 있어.)

7) 이범열, 앞의 논문, 411-412쪽 인용.

e. A: 北京有哪些觀光勝地?

(북경은 어떠한 관광명소가 있니?)

B: 有天安門廣場、故宮、長城等等。

(천안문광장, 자금성, 만리장성 등등이 있어.) (진현 2009:76)

(13a)에서 A의 질문 ‘你在幹什麼呢?’에 대해 B는 ‘在打行李呢’로 대답한다. 발화 상황에서 ‘화자’로서 자신을 지시하는 주어진 정보 ‘我’를 생략한다. 이어지는 (13b)에서 A는 ‘爲什麼?’만을 사용하여 신정보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B의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주어진 정보 ‘打行李’와 ‘청자’를 지시하는 ‘你’가 생략된다. 계속하여 A는 ‘你去旅遊嗎?’를 추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B는 자신을 지시하는 ‘我’와 A의 발화에서 언급된 주어진 정보 ‘去旅遊’를 생략하고 ‘是的’로 대답한 후, ‘周末我去北京看朋友’를 추가하여 신정보를 제시하여 대화를 진전시킨다. (13c)에서 A는 ‘你住在他家嗎?’로 다시 신정보를 요구하고, B는 ‘我不住在他家’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는 ‘我’와 A가 언급한 ‘住在他家’를 생략하고 부정을 나타내는 ‘不’만을 사용한다. 이어서 ‘我住在北京飯店’를 발화하여 신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대화를 조금 더 진전시킨다. 이어지는 (13d)에서 A는 ‘北京飯店在哪兒?’로 질문한다. 이 경우에 ‘北京飯店’은 B의 선행 발화에서 이미 언급된 주어진 정보지만, A에게는 관심의 대상으로 정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B의 대답에서 ‘北京飯店’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생략되고, 그에 대한 신정보로 ‘在天安門的附近’만이 제시된다. (13e)에서 A는 ‘北京有哪些觀光勝地?’를 발화하여 새로운 주제로 ‘北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신정보를 요구한다. 이에 B는 A가 언급한 ‘北京的觀光勝地’를 생략하고, 신정보인 ‘有天安門廣場、故宮、長城等等’만을 제시한다.

요약하면, (13)에서 대화 상황에 나타나는 ‘화자’와 ‘청자’를 각각 지시하는 ‘我’와 ‘你’가 생략되고,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주어진 정보 ‘你打行李’, ‘我去旅遊’, ‘我不住在他家’, ‘北京的觀光勝地’ 등이 생략된다. 그러나

(13d)의 A의 발화에서는 ‘北京飯店’이 B의 선행 발화(13c)에서 언급된 주어진 정보지만, A의 관심의 대상으로 정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는다. 이처럼 상황 맥락이나 문맥에서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하여 정보 가치가 낮은 것이 생략된다. 따라서 신정보보다는 주어진 정보가, 주어진 정보 중에서도 정보 가치가 낮은 것이 생략된다.

또 다른 경우를 보자.

- (14) a. 潘基文還將前往上海進行訪問, 並在復旦大學發表演講。  
 (中國經濟網 2014.5.15)  
 (반기문은 또 상해를 방문할 것이며, 또한 복단대학에서 연설을 할 것이다.)
- b. 李克強強調, 當前國際產業分工格局正在重塑。  
 (證券時報網 2015.6.9)  
 (리커창은 현재 국제산업에서 역할 분담이 재조정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 c. 奧巴馬表示: “很難預測總冠軍的最終歸屬, 兩隊實力太接近了”。  
 (騰訊體育 2015.6.13)  
 (오바마는 “어느 팀이 우승팀이 될지를 예측하기가 아주 어렵군, 두 팀의 실력이 너무 비슷해서”라고 말했다.)

(14a-c)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에 대한 세상 지식으로, 청자가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주어진 정보가 생략된 경우이다. (14a)에서는 직책과 함께 ‘聯合國秘書長潘基文’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潘基文’이 ‘聯合國秘書長’이라는 사실을 청자가 세상 지식으로 알고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저자는 ‘聯合國秘書長’을 생략하고 ‘潘基文’으로만 표현하고 있다. (14b)에서도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總理李克強’으로 하지 않고,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總理’를 생략하고 ‘李克強’만을 나타내며, (14c)에서도 ‘美國總統奧巴馬’ 대신에 ‘美國總統’이 생략된 ‘奧巴馬’로 표현하고 있다.

- (15) a. 查詢一下各位我買奔馳還是寶馬好?!  
 (여러분께 제가 벤츠를 사는 것이 좋을지 BMW를 사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b. 只有理解了中國社會才能讀懂魯迅，而只有讀懂了魯迅才能理解中國社會。(張福貴《遠離魯迅讓我們變得平庸》)  
 (중국 사회를 이해해야 루迅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루迅을 읽고 이해해야 중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c. 我終於強到小米了—挑了半天，還是決定買小米。  
 (나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샤오미를 샀다 - 만나질 동안 고르다가, 그래도 샤오미를 사기로 결정했다.)

(15a)에서 ‘奔馳牌子的車’를 사용하지 않고 ‘牌子的車’를 생략한 ‘奔馳’만을, ‘寶馬牌子的車’의 경우도 ‘牌子的車’를 생략한 ‘寶馬’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 이름인 ‘奔馳’와 ‘寶馬’를 사용하여 각각 그 브랜드의 차를 나타낸다. ‘奔馳’와 ‘寶馬’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자동차 브랜드이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청자가 지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화자가 추정하여 생략을 사용한 것이다. (15b)에서는 중국에서 유명한 작가인 ‘魯迅’을 사용하여 ‘魯迅的書’를 나타낸다. 중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魯迅的書’를 나타내기 위해 ‘的書’를 생략하고 ‘魯迅’만을 사용한 것이다. (15c)에서도 중국에서 휴대폰으로 유명한 브랜드 ‘小米’만을 사용하여 ‘小米手機’를 나타낸다. 이처럼 사회·문화에 대한 세상 지식이나 배경 지식을 토대로 청자가 지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될 경우에 작가의 작품이나 브랜드의 생산품 이름을 생략하고 ‘작가’ 또는 ‘브랜드’만을 사용한다.<sup>8)</sup>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담화 상황이나 문맥에서 주어진 정보, 또는 사회·문화에 대한 세상 지식이나 배경 지식 등을 토대로 청자가 지시 대상

8) 중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魯迅的書’나 ‘小米手機’와 같이 문자적으로 완전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작가나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아니면 생략형이 아닌 완전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화자는 생략을 사용한다. 화자가 담화 과정에서 정보 가치가 낮은 주어진 정보를 생략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화·청자의 인지에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주어진 정보는 배경 정보가 되고, 이와 관련된 신정보는 전경 정보가 되어 담화를 진전시킨다.<sup>9)</sup>

## V. 생략의 담화 기능

중국인들이 일상적인 담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략의 담화 기능으로 ‘경제적 표현과 이해’, ‘명료한 정보 전달’, ‘정보의 응집력 강화’, 그리고 ‘협력적 상호 작용’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1. 경제적 표현과 이해

일상적인 담화에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적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의미나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욕구가 있다<sup>10)</sup>. 이러한 언어의 경제성을 충족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생략을 자주 사용한다.

- (16) a. 瑪麗: 請問<sup>11)</sup>, 百貨大樓在什麼地方?  
 (실례합니다, 백화점이 어디에 있나요?)  
 B: 王府井。  
 (왕푸징에요.)

9) 정보는 담화의 기능적 관점에서 전경 정보와 배경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전경 정보는 화자가 주장하기 위해 부각시켜 전달하는 정보인 반면, 배경 정보는 전경 정보를 뒷받침해주며 바탕이 되는 정보이다. 정희자,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2004, 30쪽 참조.  
 10) 정희자, 《담화와 문법(수정판)》, 한국문화사, 2008, 171쪽 참조.  
 11) ‘請問’은 ‘我請你問’에서 ‘我’와 ‘你’가 생략된 것으로, 인습적으로 사용되는 전보적 생략이다.



b. 瑪麗: 遠嗎?

(먼가요?)

B: 不遠。

(멀지 않아요.)

(康玉貨·來恩平 1994:85)

(16a)에서 瑪麗는 ‘百貨大樓在什麼地方?’을 발화하여 ‘百貨大樓’를 주제로 제시하고,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요구한다. 이에 B는 ‘百貨大樓在王府井’으로 대답하지 않고, 瑪麗의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주제 ‘百貨大樓’와 ‘在’를 생략하고 신정보인 ‘王府井’만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16b)에서 瑪麗도 ‘百貨大樓離這兒遠嗎?’로 질문하지 않고, 주제인 ‘百貨大樓’와 ‘발화 장소로부터’를 나타내는 ‘離這兒’를 생략하고 ‘遠嗎?’만을 발화하여 주제에 대한 다른 정보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B도 주제인 ‘百貨大樓’와 ‘離這兒’를 생략한 ‘不遠’으로만 대답한다. 이와 같이, 대화의 서두에 제시된 주제가 지속되는 동안 대화자들은 이미 활성화된 주제를 생략하고, 그에 대한 신정보만을 계속 제시함으로써 표현이 간단하고,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이처럼 정보 가치가 낮은 잉여적인 정보나 이미 주어진 정보를 생략하고, 정보 가치가 높은 중요한 정보만을 표현하는 것은 효율적인 대화를 위한 Paul Grice의 대화의 협력원칙에서 “진행되는 대화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는 양의 격률을 지키는 경우라 하겠다.<sup>12)</sup>

12) Grice(1975:45)가 제시한 “대화의 협력원칙”(the cooperative principle)은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 기여하라”라는 일반 원칙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질의 격률’, ‘양의 격률’, ‘관련성 격률’, ‘태도 격률’의 4가지 격률로 구성된다. 1) 질의 격률로는 ‘진실된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①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와 ②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이다. 2) 양의 격률은 ① ‘진행되는 대화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와 ②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며, 3) 관련성 격률은 ‘관련성을 지녀라’이며, 4) 태도 격률은 ‘명료히 하라’로, 좀 더 구체적으로 ① ‘모호성을 피하라’, ② ‘중의성을 피하라’, ③ ‘간결히 하라’, ④ ‘조리 있게 하라’이다. 정희자,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2004, 89쪽 인용.

또 다른 경우를 보자.

- (17) a. A: 你終於來了。  
(너 마침내 왔구나.)  
B: 對不起, 我有事兒來晚了。  
(미안해, 나는 일이 있어서 늦게 왔어.)  
b. A: 沒關係. 你是坐地鐵來的嗎?  
(괜찮아. 너는 지하철을 타고 왔니?)  
B: 不是, 我是騎自行車來的。  
(아니, 나는 자전거를 타고 왔어.)  
c. A: 明天我們回國. 你知道嗎?  
(내일 우리 귀국해. 너는 알고 있니?)  
B: 知道. 是李英愛早上告訴我的。  
(알고 있어. 李英愛가 아침에 나에게 알려주었어.)

(17a)에서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난 B는 ‘我對不起你’라 하지 않고, 대화 장소에 존재하는 ‘我’와 ‘你’를 생략한 ‘對不起’로 사과한 후, 늦게 온 이유로 ‘我有事兒來晚了’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17b)에서 A는 ‘你是坐地鐵來的嗎?’로 새로운 정보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B는 ‘我不是坐地鐵來的’라고 대답하는 대신 ‘我’와 A의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坐地鐵來的’을 모두 생략한 ‘不是’를 사용하여 ‘부정’하고, 새로운 정보 ‘我是騎自行車來的’을 추가한다. 이어지는 (17c)에서 A는 화제를 바꾸어 ‘明天我們回國’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실을 B가 알고 있는지를 ‘你知道這件事兒嗎?’로 질문하지 않고, ‘這件事兒’를 생략한 ‘你知道嗎?’로 묻는다. 이에 대해 B도 ‘知道’로만 대답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로 ‘是李英愛早上告訴我的’를 제시하여 강조한다.

(16-17)에서처럼 화자는 선행 발화에서 이미 언급되어 활성화된 주어진 정보와 발화 상황에서 복원 가능한 ‘我’와 ‘你’를 생략함으로써, 적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도 부각시키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표현

한다. 또한 청자도 반복되는 부분들의 생략으로 시간과 에너지 소모는 물론 지루함과 피곤함을 피할 수 있고,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만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생략은 화자는 물론 청자에게도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의도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대화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 2. 명료한 정보 전달

사람들은 담화 과정에서 장황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간결하게 표현하여 의도한 정보가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략을 사용한다.

다음에 주어진 생략형(18a-c)과 생략하지 않은 완전형(19a-c)을 비교해보면, 생략형은 간결한 표현으로 의도한 중요한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함을 알 수 있다. 과일 상점에서 상인(A)과 손님(B)의 대화 (18)과 (19)를 살펴보자.

(18) a. A: 您要什麼?

(당신은 무엇을 원해요?)

B: 我要蘋果, 多少錢一斤?

(나는 사과를 원해요. 한 근에 얼마죠?)

b. A: 兩塊五一斤。

(한 근에 2원 50전입니다.)

B: 那種呢?

(저 종류는요?)

c. A: 一塊三。

(1원 30전입니다.)

(康玉華·來思平 1990:97)

(19) a. A: 您要買什麼水果?

(당신은 무슨 과일을 사시려고요?)

- B: 我要買蘋果。這種蘋果多少錢一斤?  
 (나는 사과를 사려고 해요. 이 종류의 사과는 한 근에 얼마죠?)
- b. A: 這種蘋果兩塊五毛一斤。  
 (이 종류의 사과는 한 근에 2원 50전입니다.)
- B: 那種蘋果多少錢一斤呢?  
 (저 종류의 사과는 한 근에 얼마죠?)
- c. A: 那種蘋果一塊三毛一斤。  
 (저 종류의 사과는 한 근에 1원 30전입니다.)

(18a)에서 상인(A)은 ‘您要什麼?’로 질문하여 ‘您要買什麼水果?’를 의미한다. 과일 상점에서 일어난 대화이므로 대화 상황에서 추론 가능한 ‘買’와 ‘水果’를 생략한다. 이에 손님(B)도 ‘買’를 생략한 ‘我要蘋果’로 대답한 후, 바로 앞에 있는 ‘蘋果’를 가리키면서 ‘這種蘋果’를 생략한 ‘多少錢一斤?’으로 질문한다. 이어지는 (18b)에서 A도 ‘這種蘋果’를 생략하고, 무게 단위인 ‘一斤’과 금액 ‘兩塊五’만을 제시한다. 특히 중국 화폐 단위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추론 가능한 ‘塊’의 하위 단위인 ‘毛’를 생략한다. B는 좀 떨어진 곳에 있는 ‘蘋果’를 가리키며 ‘那種蘋果多少錢一斤呢?’로 질문하지 않고 ‘那種呢?’로 질문한다. 이에 대해 (18c)에서 A는 선행 발화들에서 언급된 ‘那種蘋果’, ‘毛’, ‘一斤’을 모두 생략하고 ‘一塊三’으로만 대답한다. 이처럼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것과 발화 상황에서 복원 가능한 요소들을 모두 생략하는 경우(18a-c)에는 화자가 의도한 정보가 명료하게 부각되어 전달된다.

생략은 화자가 전달하려는 중요한 정보를 ‘초점’으로 명료하게 부각시켜 청자의 주의를 모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초점으로 정보적 초점과 대조적 초점이 있으나<sup>13)</sup>, 어떤 초점이든 관계없이 명료하게 부각시켜 전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생략을 사용한다. 정보적 초점의 경우를 보자.

13) 초점은 정보적 초점과 대조적 초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적 초점으로는 정보 가치가 높은 신정보를 선택하며, 대조적 초점은 대조되는 대상들을 현저히 부각시켜 전달하는 것으로, 신정보일 수도 있고 주어진 정보일 수도 있다.

(20) 李：如果我們承認侵權,你們打算要多少賠償?

(만약 우리가 권리 침해를 인정한다면, 당신들은 얼마의 배상금을 요구하려고 합니까?)

何：五萬。

(오만원.)

(王朔等 《歌星雙雙》)

(20)에서 李는 ‘如果我們承認侵權,你們打算要多少賠償?’을 발화하여 ‘賠償’에 관한 何의 의견을 묻는다. 이에 대해 何는 자기의 주장을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 ‘我們打算跟你們要.....塊錢的賠償金’을 생략하고 꼭 필요한 정보인 ‘五萬’만을 초점으로 명료하게 부각시켜 전달한다. 만약 何가 ‘我們打算跟你們要五萬塊錢的賠償金’으로 대답한다면,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주어진 정보로 인하여 신정보 ‘五萬’의 초점성이 약화되고 상대방의 주의를 오히려 ‘賠償金’에 모이게 된다.

생략을 사용하여 대조적 초점을 부각시키는 경우를 보자.

(21) ① 他的野心比你的大, ② 比我的大, ③ 比我們大家的都大。

(그의 야심은 너의 것보다 크고, 나의 것보다 크고, 우리들 모두의 것보다도 더 크다.)

(21)의 화자는 ①에서 ‘他的野心’과 ‘你的野心’을, ②에서 ‘他的野心’과 ‘我的野心’을, ③에서 ‘他的野心’과 ‘我們大家的野心’의 대조를 나타내려 한다. 이 경우에 화자는 문장의 맨 처음에 ‘他的野心’을 주제로 제시하고, 후행하는 부분들에서 동일 주제인 ‘他的野心’을 생략하고, 비교의 대상 ‘你的野心’, ‘我的野心’, ‘我們大家的野心’에서 ‘野心’을 모두 생략함으로써 ‘他的野心’에 대한 대조적 초점의 대상을 ‘你的’, ‘我的’, ‘我們大家的’으로 명료하게 나타낸다. 만약 이러한 생략 없이 ‘他的野心比你的野心大’, ‘他的野心比我的野心大’, ‘他的野心比我們大家的野心都大’로 표현한다면, 대조적 의미가 보다 약하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대조적 초점도 명료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22) A: 你們家鐘點工每天來搞衛生嗎?

(너의 집엔 파출부가 매일 와서 청소하니?)

B: 星期天不。

(일요일은 안 와.)

(陳偉英 2005:179)

(22)에서 A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B는 ‘我們家鐘點工星期天不來搞衛生’을 사용하지 않고 ‘星期天不’만을 사용한다. B는 A의 선행 질문에서 이미 언급된 주어진 정보 ‘我們家鐘點工……來搞衛生’을 생략함으로써 A의 질문의 초점 ‘每天來’에 대한 대조적 초점으로 ‘星期天不’을 명료하게 부각시켜 대답한다. 만약 ‘我們家鐘點工……來搞衛生’을 생략하지 않는다면, ‘星期天不’이 대조적 초점으로 부각되는 정도가 매우 낮아진다.<sup>14)</sup>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략을 사용하여 중요한 정보 또는 초점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은 Paul Grice의 대화의 협력원칙에서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하라’는 태도의 격률을 준수하는 경우라 하겠다.

### 3. 정보의 응집력 강화

일상적인 담화에서 문장의 한 부분이 생략될 경우에, 그 생략된 부분의 해석은 선·후행 문장의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생략으로 인해 선·후행 문장 간 정보의 응집력이 강화된다.

(23) ① 來了一群作家, ② ( )發動社員寫詩歌, ③ 接著又來了一批畫家,

④ ( )教給社員作畫。

(陳平 1987:367)

(작가들이 한 무더기로 와서, 사원들(인민공사의 합작사 직원)에게 시를 쓰게 하였고, 계속해서 화가들도 한 무더기로 와서, 사원들(인민공사의 합작사 직원)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다.)

(23)의 화자는 선행절①에서 ‘一群作家’를 신정보로 등장시키고, 후행절

14) 이범열, 《현대중국어의 담화화용론》, 한국문화사, 2012, 197쪽 인용.

②에서는 이 ‘一群作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 선행절①에서 언급되어 활성화된 ‘一群作家’를 후행절②의 문두 위치에서 생략한다. 환언하면, 후행절②에서 생략된 요소의 해석은 선행절① ‘來了一群作家’와 ②의 ‘發動社員寫詩歌’를 응집시킴으로써 ‘一群作家’임이 밝혀진다. ③과 ④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후행절③에서 새로이 등장한 ‘一批畫家’가 후행절④의 문두 위치에서 생략된다. 생략된 ‘一批畫家’의 복원은 후행절③ ‘接著又來了一批畫家’와 후행절④의 ‘教給社員作畫’를 응집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환언하면, ②에서의 생략은 문장①과 ②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응집시키고, ④에서의 생략은 문장③과 ④의 정보를 응집시킨다. 따라서 화자의 발화(23)는 두 개의 정보 단위(①과 ②, 그리고 ③과 ④)로 구성된다.

생략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절들이 하나의 정보 단위로 응집되는 경우를 보자.

- (24) ① 這家老大娘看小妹獨孤苦伶仃的一個婦女, ② ( )就開了門, ③ ( )讓( )進屋裏, ④ ( )拿出餠餠給她吃。 (袁靜 《新兒女英雄傳》)  
(이 집 할머니는 작은 누이가 의지할 데 없는 부녀자임을 보고, 문을 열어서, 방으로 들어오라 하고는, 떡을 내와 그녀에게 먹게 했다.)

(24)에서는 ①의 문두에 ‘這家老大娘’을 주제로 제시하고, 이 주제에 대한 설명에서 ‘小妹’를 소개한다. 그리고 후행절 ②, ③, ④ 각각의 문두 위치에서 동일한 주제 ‘這家老大娘’을 생략하고,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각각 제공함으로써 4개의 절이 응집되어 주제 ‘這家老大娘’에 대한 단일 정보 단위를 이루고 있다. 또한 후행절③에서는 주제 ‘這家老大娘’에 대한 설명 ‘讓( )進屋裏’에서 동사 ‘讓’의 대상이며 선행절①에서 소개된 ‘小妹’를 생략하였다.<sup>15)</sup> 이처럼 생략의 대상은 이미 언급되어 활성화된 주

15) (24)에서 저자의 목적은 주제로 ‘這家老大娘’을 소개하고 그의 선행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절①에서 소개하여 활성화된 수혜자 ‘小妹’를 더 이상 강

어진 정보로 정보 가치가 낮은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선·후행절 간 정보의 응집력이 강화된다.

#### 4. 협력적 상호 작용

일상적인 담화에서 화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자가 생략된 요소를 복원 또는 추론 가능하여 전달되는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생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문맥이나 발화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는 생략하는 반면, 화자가 언급함으로써 청자가 알게 되는 신정보는 생략하지 않는다. 또한 청자가 응답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언급했거나 발화 상황에 명료하게 나타나는 정보를 생략하고 핵심 정보만을 제시한다. 이처럼 생략의 사용에는 화·청자 간의 협력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원만한 담화가 이루어진다. 다음은 버스 안에서 교환된 손님(A)과 매표원(B)의 대화로, 이들대화자들은 모두 성인이다.<sup>16)</sup>

(25) a. A: 售票員, 我買一張票。(매표원, 나 표 한 장 샅시다.)

B: 哪兒上的?(어디에서 타셨죠?)

b. A: 前一站。(한 정거장 전에서요.)

B: 去哪兒?(어디로 가시는데요?)

c. A: 去語言學院。(어언학원으로 가요.)

要換車嗎?(차를 갈아타야 하나요?)

B: 要換車。(차를 갈아타야 해요.)

d. A: 在哪兒換車?(어디에서 차를 갈아타야 하죠?)

B: 平安里。(평안리에서요.)

e. A: 換幾路車?(몇 번 버스로 갈아타죠?)

B換331路。(331번으로요.)

조할 필요가 없으므로 후행절<sup>③</sup>의 목적어 위치에서 생략하였다.

16) 담화의 변이 요소로 ‘연령’을 들 수 있다. ‘성인’이라는 조건하에서 협력적 상호 작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 f. A: 謝謝! (고마워요!)  
 B: 不謝。(천만에요.) (康玉華·來思平 1990:115-116)

- (26) a. A: 售票員, 我買一張車票。  
 B: 哪兒上的?  
 b. A: 我是前一站上的車。  
 B: 去哪兒?  
 c. A: 我去語言學院。我要換車嗎?  
 B: 要換車。  
 d. A: 我在哪兒換車?  
 B: 平安里。  
 e. A: 我要換幾路車?  
 B: 換331路。  
 f. A: 謝謝你!  
 B: 不謝。

(25)에서 손님(A)과 매표원(B)은 생략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질문과 대답을 한다. (25a)에서 A는 대화의 시작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我’를 주제로 제시하고, 이 주제에 대한 신정보 ‘買一張票’를 전달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B는 발화 상황에 존재하는 ‘你’와 A의 선행 발화로부터 추론되는 주어진 정보 ‘車’(上的車)를 생략한 ‘哪兒上的?’을 발화하여 신정보를 요구한다. (25b)에서 A가 신정보 ‘前一站’만을 제시하자 B도 ‘去哪兒?’를 발화하여 또 다시 신정보만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25c)에서 A는 신정보 ‘去語言學院’을 제시하고, 새로운 질문으로 ‘要換車嗎?’를 추가한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B는 A가 질문한 ‘要換車’를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여 사용한다. 이에 (25d)에서 A는 ‘在哪兒換車?’를 발화하여 ‘환승할 장소’에 대하여 문의한다. 이에 B는 신정보 ‘平安里’만을 제시하고, A의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주어진 정보로 정보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換車’를 생략한다. 이처럼 주어진 정보라 하더라도 화자가 강조하려는 것(25c에서 B가 반복한 ‘要換車’)은 정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고, 정보 가치가 낮

은 것만을 생략한다. (25e)에서 A는 또 다시 ‘換幾路車?’를 발화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B도 신정보로 ‘換331路’를 제시한다. 요약하면, 발화 상황에 존재하는 ‘我’와 ‘你’가 생략되고, 문장 내의 선·후행 요소에 의해 복원되는 ‘車’(車票, 上的車)가 생략되며, 선행 발화에서 이미 언급된 주어진 정보이지만 정보 가치가 높은 것(25c에서 B의 ‘要換車’)은 생략될 수 없으나, 정보 가치가 낮은 것(上的, 換車)은 생략된다.

만약, 성인들의 대화인 (26)에서처럼, A는 생략하지 않은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고 B는 생략된 표현을 사용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A가 생략형을 사용하는 B에 대해 매우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A는 생략된 표현을 사용하고 B가 완전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B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생략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화자 간의 협력적 상호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VI.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일상적인 담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략의 담화 기능을 현대중국어론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략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4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생략의 여부 및 생략할 요소는 화자가 발화 목적에 따라 선택한다. ② 생략은 맥락 없이는 사용될 수 없으며, 생략된 부분이 맥락에 따라 다른 대상을 지시하기도 한다. ③ 생략된 요소가 맥락에 의해 복원 또는 추론 가능해야 한다. ④ 생략은 선·후행 문맥에서 언급된 것과 형태 및 지시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생략의 유형으로 상황적 생략, 문맥적 생략, 전보적 생략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셋째, 정보와 생략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① 정보를 신정보와 주어진 정보로 구분하고, ② 정보 가치는 신정보가 주어진 정보보다 높으

며, 주어진 정보 중에서도 화자의 발화 목적과 관련하여 정보 가치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 ③ 주어진 정보로서 정보 가치가 낮은 것이 생략의 대상이 됨을 논의하였다.

넷째, 생략의 담화 기능으로, 정보의 경제적 표현과 이해, 명료한 정보 전달, 정보의 응집력 강화, 그리고 대화자의 협력적 상호 작용에 대하여 논의했다. 중국인들은 생략을 사용함으로써 ① 최소의 시간, 노력, 그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의도한 정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이해한다. ② 주어진 정보나 잉여적인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정보 가치가 높은 중요한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하여 청자의 주의를 모은다. ③ 반복되는 정보의 생략을 통하여 문장 요소 간이나 문장 간 정보의 응집력을 강화한다. 특히 선·후행절의 주제가 동일한 경우에 후행절의 주제를 생략함으로써 선·후행절이 하나의 정보 단위로 응집된다. ④ 생략의 사용과 관련하여 화·청자 간의 협력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결론으로, 중국인들은 일상적인 담화 과정에서 생략을 사용함으로써 최소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간결한 표현으로 중요한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한다. 또한 정보의 응집을 통하여 명확한 정보 단위를 이루며, 화·청자 간의 협력적 상호 작용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담화를 한다. 이처럼 생략은 담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References>

1. Baek, Youngjin, "A Study on Zero anaphor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4, (1994): 205-229.
2. Chen, Ping, "Analysis of Zero anaphora in the Chinese Spoken Languag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5, (1987): 363-378.
3. Chen, Weiyang, "Ellipsis and Deletion," *Journal of Zhejiang University* 6, (2005): 177-184.

4. Chong, Hija, *Discourse and Grammar(Revised)*, Hankook Munhwasa, 2008.
5. Chong, Hija, *Discourse and Inference*, Hankook Munhwasa, 2004.
6. Ding, Shengshu and Shuxiang Lü, *Lecture on Mandarin Chinese Grammar*, The Commercial Press, 1961.
7. Du, Yanbing, "A Study of Subject Ellipsis in Descriptive Sentences," *The Chung Kuk Mun Hak* 64, (2010): 311–327.
8. Fan, Kaitai, "Ellipsis, Implicature, Intimatio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2, (1990): 20–32.
9. Fang, Mei, "On Subject Ellipsis in Complex Sentences," *Journal of Yanbian University* 1, (1985): 46–56.
10. Hu, Yushu and Xiao Fan, *Review of Verb Studies*, Sanxi High School Association Press, 1996.
11. Jin, Hyun, *The First Step for Chinese Learning*, Dongyang Mungo, 2009.
12. Kang, Yuhua and Siping Lai, *Chinese Conversation 301 Phrases*, Beijing Yuyanxueyuan Publish, 1990.
13. Kim, Huijin, "A Study on Abbreviation–Based on Ellipsis in Chinese," *The Research of Language and Literature*,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995): 91–111.
14. Kuang, Ping, "A Comparative Study on Zero anaphora in Chinese and English," *Journal of Guizhou Minzuxueyuan* 5, (2006): 143–145.
15. Lee, Byumlyul, "A Study on Topic in Mandarin Chinese—from the Point of Discourse Function,"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33, (2010): 405–431.
16. Lee, Byumlyul, *Pragmatics and Discourse in Mandarin Chinese*, Hankook Munhwasa, 2012.

17. Lee, Minwoo, "A Study on Subject Ellipsis in Mandarin Chinese—Based on the Reconsideration of Subject," *Studies on the Chinese Language* 22, (2006): 97–133.
18. Lee, Namkyung, *A Study on Ellipsis in Mandarin Chinese*, MA Thesis, Yensei University, 2000.
19. Li, Fengrui, "A Comparative Study of Discourse Connection in Chinese and English," *Journal of Kaifeng Jiaoyuxueyuan* 3, (2014): 57–58.
20. Lu, Zhen,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ntence Elements Omission in Korean and Chinese*, MA Thesis, Sun Moon University, 2012.
21. Lü, Shuxiang, *Introduction to Chinese Grammar*, The Commercial Press, 1942.
22. Ma, Jianzhong, *Ma Shi Grammar*, The Commercial Press, 1898 [1983].
23. Park, Youngrok, "Sentence without Subject and Sentence with Subject Ellipsis",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4 (1997): 53–66.
24. Rong, Jing, "Differences among Chinese Ellipsis, Implicature and Empty Category," *Journal of Xinjiang University* 4, (1989): 83–89.
25. Shen, Yang, *A Study on Chinese Empty Category*, Shandong Education Press, 1994.
26. Tang, Jing, "A Comparative Study on Discourse Connection in Chinese and English," *Journal of Anyang Normal University* 3, (2003): 84–87.
27. Wang, Li, *Introduction to Chinese Grammar*, The Commercial Press, 1946
28. Yang, Suqin, "Differences of Discourse Connection in Chinese and English Descriptive Proses,"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ture*

- 6, (2014): 10-11.
29. Yoon, Kyungae, *A Comparative Study on Ellipsis in Korean and Chinese*, MA Thesis, Korea University, 2003.
30. Zhang, Lixin, *A Comparative Study on Connection in the Spoken and Written Language*, MA Thesis, Dalian Haishi University, 2007.

<참고문헌>

1. 白水振, <漢語零照應研究>, 《中國語文學》 第24輯, 1994, 205-229쪽.
2. 陳平, <漢語零形回指的話語分析>, 《中國語文》 第5期, 1987, 363-378쪽.
3. 陳偉英, <省略與省力>, 《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6期, 2005, 177-184쪽.
4. 정희자, 《담화와 문법(수정판)》, 한국문화사, 2008.
5. 정희자,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2004.
6. 丁聲樹·呂叔湘等編, 《現代漢語語法講話》, 商務印書館, 1961.
7. 杜豔冰, <敘事體語篇中主語省略情況的研究>, 《중국어문학》 제64집, 2010, 311-327쪽.
8. 範開泰, <省略、隱含、暗示>, 《語言教學與研究》 第2期, 1990, 20-32쪽.
9. 方梅, <關於復句中分句主語省略的問題>, 《延邊大學學報(社科版)》 第1期, 1985, 46-56쪽.
10. 胡裕樹·範曉, 《動詞研究綜述》, 山西高校聯合出版社, 1996.
11. 진현, 《가장 쉬운 중국어 첫 걸음의 모든 것》, 동양문고, 2009.
12. 康玉華·來思平, 《漢語會話301句》,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0.
13. 金希珍, <약어 유형에 대한 연구-한자어의 생략 현상을 중심으로>, 《語

- 文研究》, 韓國語文教育研究會, 1995, 91-111쪽.
14. 鄭萍, <漢英零形回指對比>, 《貴州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5期, 2006, 143-145쪽.
  15. 이범열, <현대중국어의 주제에 대하여 - 담화 기능적 관점에서>, 《中國語文學誌》第33輯, 2010, 405-431쪽.
  16. 이범열, 《현대중국어의 담화화용론》, 한국문화사, 2012.
  17. 이민우, <현대중국어의 주어 생략에 관한 연구 - 주어에 대한 재인식 을바탕으로>, 《中國言語研究》第22輯, 2006, 97-133쪽.
  18. 이남경, 《現代漢語의 省略文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9. 李豐芮, <漢英語篇的銜接差異>, 《開封教育學院學報》第3期, 2014, 57-58쪽.
  20. 루진, 《한·중 문장성분 생략의 비교》,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1.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1942.
  22. 馬建忠, 《馬氏文通》, 商務印書館, 1898[1983].
  23. 朴英綠, <無主語文과 主語 省略文>, 《現代中國研究》第4輯, 1997, 53-66쪽.
  24. 榮晶, <漢語省略, 隱含和空語類的區分>, 《新疆大學學報(哲學人文社會科學版)》第4期, 1989, 83-89쪽.
  25. 沈陽, 《現代漢語空語類研究》, 山東教育出版社, 1994.
  26. 唐靜, <漢英雙語中語篇銜接手段的對比>, 《安陽師範學院學報》第3期, 2003, 84-87쪽.
  27. 王力, 《中國語法綱要》, 商務印書館, 1946.
  28. 楊素琴, <敘事性散文中英漢銜接手段的不同>, 《語文學刊(外語教育教學)》第6期, 2014, 10-11쪽.
  29. 윤경애, 《한·중 담화에 나타나는 생략현상 대조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0. 張麗新, 《口語與筆語中銜接手段運用的對比研究》, 大連海事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lt;Abstract&gt;

This paper aims to show the discourse function of ellipsis in Mandarin Chinese, with relation to linguistic economy, salient information delivery, coherence, and cooperation: ① As for linguistic economy, the speaker is able to utter as little as possible to convey his intended message, and the listener to make a minimal mental effort to understand the delivered message. ② The process of ellipsis is applied selectively with reference to the speaker's discourse purpose of salient information delivery. Less important information should be deleted first and more important information last, all of which are given information. New information should not be deleted. ③ Ellipsis is assumed to have a strong coherent force for information delivery. ④ Ellipsis can be effectively used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Without the cooperation, either the speaker or the listener using the full form can be felt as being insulted by the other party using the deleted form. In conclusion, ellipsis can be used as an useful discourse tool with the functions mentioned above in Mandarin Chinese.

Key Words : 생략(ellipsis), 담화 기능(discourse function), 언어적 경제성 (linguistic economy), 명료한 정보 전달(salient information delivery), 응집력(coherence), 협력(cooperation).